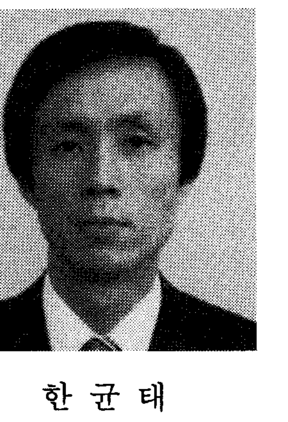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다-12

◇언론특집 —— 전파월경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무단전파로 왜곡되는 '지구촌화'



한 균 태
(정경대 교수·신방학)

Ⅰ. 들어가며

최근 방송의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외국 직접위성방송(DBS)에 의한 전파월경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아무런 국가적 간섭을 받지않고 국경선을 자유롭게 넘어서는 전파침투는 수신국에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 결국 국가간에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적대감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동체 조성의 분위기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일본의 BS-3a와 BS-3b 위성을 통한 NHK TV의 2개 채널 및 JSB의 1개 채널과 홍콩의 Asia Sat-1 위성을 통한 Hucthison그룹 산하 STAR TV의 5개 채널 등 8개 채널에 의한 직접위성방송이 국내에 무방비 상태로 누출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세계에서 첨단통신기술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과 세계 커뮤니케이션산업의 거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홍콩에서 송출되는 직접위성방송이 미치게 될 전파유입의 영향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곧 도래할 본격적인 국경없는 텔리비전시대를 앞두고 DBS에 의한 전파월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여러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직접위성방송의 본질을 살펴보고 가장 쟁점이 되고있는 전파월경의 문제점과 국제규약 등을 파악한 후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직접위성방송의 본질

직접위성방송이란 적도상공 3만6천Km 정도에 위치한 정치궤도에 발사된 방송위성을 통해 송신된 방송신호를 각 가정에서 소위 접시형(parabola)안테나라고 불리우는 소형 개별 수신용 안테나 시설을 설치 이용하여 직접 수신할 수 있게 한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DBS기술은 중계시설 없이는 가시청 거리가 약 80Km 정도에 지나지 않던 종래의 TV방송을 거리의 제한없이 지상수신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신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방송 서비스의 영역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요즘들어 메시지 커버지역의 광역성, 투자비용의 경제성, 송출방향의 유연성, 메시지 운반용량의 대량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직접방송위성의 활용능력에 대한 인식이 각국에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여서 머지않아 그 이용이 전세계로 확산될 전망이다.

직접방송위성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상 송신국의 TV나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방송위성을 통해 국가의 주권을 의미하는 국경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전파의 국경초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전파월경은 원치않는 외국 프로그램의 수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 특히 저개발국가들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이다.

전파월경이 일어나는 요인은 대체로 위성전파(beam)의 위치, 트랜스폰더(transponder)의 송신출력, 지상 수신안테나의 성능 등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성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세계무선주관회의(WARC)에 의해 송출력이 송신국의 영토규모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파월경의 범위는 주로 수신국의 대응정책, 수신자의 원근, 사용하는 수신 안테나의 크기 및 감도능력 등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전파월경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송신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수신국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원치않는 외국프로그램의 수신을 초래함으로써 수신국의 문화적 자율성이 상실 될 수 밖에 없다

Ⅲ. 전파월경의 문제점

앞서 언급했듯이 방송위성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송신국의 TV프로그램이 주변국가에 어쩔 수 없이 흘러들어가게 마련이다. 직접위성방송은 국가경계에 따라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전파월경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나 수신국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즉 전파월경은 정보의 양과 질에 대해 수신국이 자주적으로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주권적인 권리침해의 가능성,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통한 악의적인 프로파갠더의 가능성, 외국상품 광고방송을 통한 수신국 경제산업 및 소비행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 외국프로그램의 계속적인 누출로 인한 문화제국주의현상 등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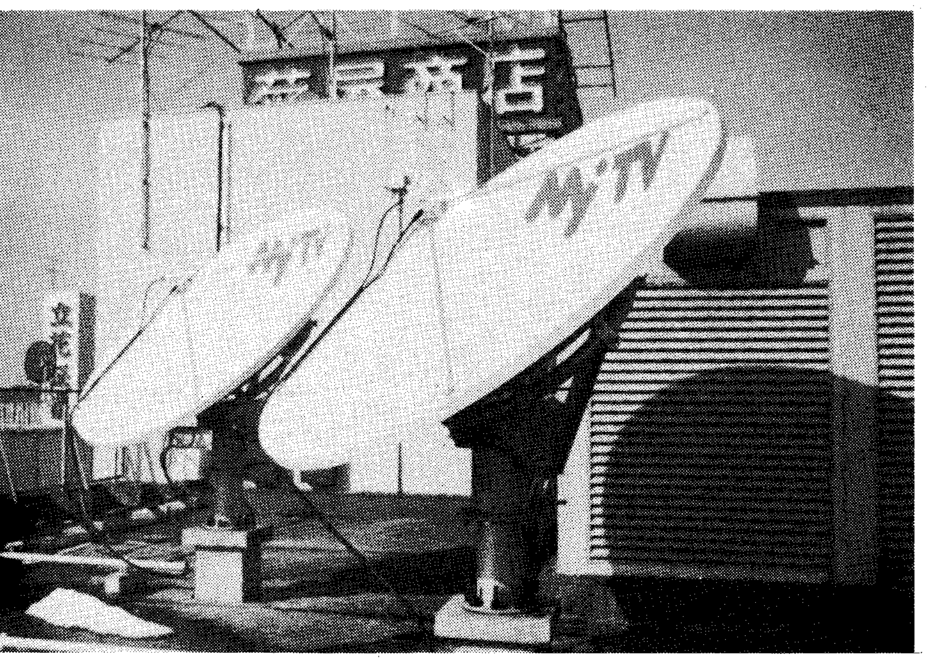
이같은 전파월경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수신국의 문화적 주권침해와 함께 문화적 동질화 현상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캐나다의 마샬 맥루한은 일찍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세계가 지구촌화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분히 낭만적이라고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이같은 맥루한의 발상이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

오히려 직접방송위성과 같은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서방 선진국에 의한 문화제국주의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파월경을 통한 외래문화의 일방적 유입은 우리의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시켜 문화종속의 수렁속으로 빠져 들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직접위성방송은 종전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보다도 훨씬 큰 잠재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어 수신국의 문화적 자율성이 더더욱 상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화적 산물의 내용에 그 나라의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문화·경제적 가치 및 신념체계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면 전파월경의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의 영컬쳐(young culture)가 오늘날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상업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기존의 자주문화를 위협할 만큼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흐름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외래문화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자유로운 전파월경을 통해 쉽게 유입되고 있는 서구문화, 왜색문화가 젊은 세대의 의식, 가치관, 행위 등에 미치게 될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가볍게 보아 넘길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직접방송위성방송과 같은 고도의 기술은 선진국에 의한 문화적 제국주의 현상을 심화시킨다.

각국 이해차이로 越境 막을 국제규약 부재 상태

주체적 대중문화 유도할 방송수준 향상 요구돼

Ⅳ. 국제적 규약

전파월경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UN, ITU(국제전기통신연맹),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국가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나라마다 다양한 미디어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파월경의 문제점들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다룰만한 국제법상의 규칙이 마련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실상 거의 없는 형편이다.

1958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이미 'Ad-hoc(사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스러운 우주공간의 이용을 위한 새로운 법률적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가 있었다. 1972년 11월 9일 UN총회에서도 각국이 기본적인 원칙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국가간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못해 합리적으로 적용할만한 국제규약이 마련되지 못했다. 예컨대, 1972년 총회에서 제3세계 및 공산주의 국가들은 외국방송이 내부간섭을 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배경에 입각, 국경을 초월하는 방송에 대해 수신될 국가와의 사전협의를 요하는 사전동의원칙(prior concent prinzip)을 주장하였다.

자유로운 전파월경은 외래문화에 젖은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을 심화시키고…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1948년 UNESCO 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정보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조항)에 의거, 자유로운 정보유통원칙을 내세웠다. 이처럼 양자간의 원칙이 상호 배제적이어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한편 1982년 12월 제37차 UN총회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선진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BS운영국이 국제적인 전파를 송출시 주권 및 불간섭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신국과 협의하거나 통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위성방송의 기본원칙이 채택되었다. 그렇지만 이 원칙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수신국과의 사전협의의 적용여부, 합의 당시 기권을 한 선진국들의 수락여부 등이 불확실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ITU는 사전합의가 없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전파침투를 줄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만들어 놓았으나 DBS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DBS에 대한 국제법적인 처리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시각차이로 인해 합당하고 효율적인 규칙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고 하겠다.

Ⅳ. 나오며

장차 국내외적으로 계속 밀려올 직접위성방송을 통한 전파침투 및 문화침입의 물결속에서 우리가 고유 문화의 주체성을 지킨다는 일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마구 쏟아져 들어 올 외래문화, 특히 그중에서 퇴폐적이고 지나치게 감각적이며 오락적인 대중문화에 대한 대응책을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직접위성방송을 통한 전파월경을 물리적으로 전면 차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이상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을 통한 우리 문화의 적응력 제고가 시급하다. 더욱이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방송의 국제화시대를 표방한 우리로서는 소극적이고 작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외국의 이질적 대중문화의 범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응책은 무엇보다도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의 대중가치가 진솔하게 표현되는 수준 높은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제작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채널간 특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고유의 주체적인 대중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방송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1995년 발사하게 될 무궁화위성을 포함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위성방송시스템을 개발하여 전파월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외국 대중문화의 국내침투를 극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당분간 범세계적인 전파월경의 해결방안을 거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지역적 차원에서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전파침투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발족을 제창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朔風

지혜의 횃불로 우뚝서라, 대학주보여

가히 변혁의 세기말이라고 할만하지 않은가.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나 겪을 것이 예상되는 세계사적인 또는 국내적인 변혁의 양상은 충격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변혁은 모순구조의 폭발로부터, 모순구조의 해소를 위한 대안의 모색으로부터 온다.

천민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모색되어 오던 사회주의가 그 정치적 실현의 종주국에서조차 최소한 겉으로나마 무너지던 그 상황은 어떠한 의미와 교훈으로 다가오는가. 동서 이념대결의 퇴조와 함께 더욱 가열하게 표출될 것으로 전망되는 남북대결의 지구적 양상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안은 무엇인가.

20세기의 전반에 걸쳐 겪었던 민족의 수난, 우리 현대사의 모든 부조리와 비극의 원죄인 일제의 강점은 그 이후 반세기 가까이 흐른 세월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채로이지만 일본과의 관계속에서 맡아지는 짙은 음모의 냄새, 대일관계의 흐름은 새로운 종속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20세기를 10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오늘, 민족이 처한 이러한 대외모순만으로도 숨가쁜데 안으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여전히 분단극복, 통일은 민족지상과제이지만 금세기 안에 해소된다는 확실한 전망이 없고보면 내적 모순의 제1과제인 통일은 언제쯤이면 가능할런지. 외형적으로만 커진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는 그 구성원인 우리네 삶의 양태와 질을 어떻게 규정짓고 있으며, 이로인해 파생되는 온갖 경제적, 사회적 모순고리는 어떻게 깨쳐 나갈 것인가. 식민상태의 문화적 억압의 소산조차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채 새로운 제국주의문화, 그 비철학적이고 공격적인 외래문화에 겹치기 종속당한 가사상태의 우리정신과 생활문화의 정체성은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일하는 자가 향유해야 할 생산의 과실이 오히려 일하지 않는 자에게로 훨씬 더 많이 유입되는 분배의 모순 구조는 해결할 방도가 모색되고 있기나 한 것인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며, 우리네 공동체의 21세기를 예비하는 투철한 의식을 세우려는 노력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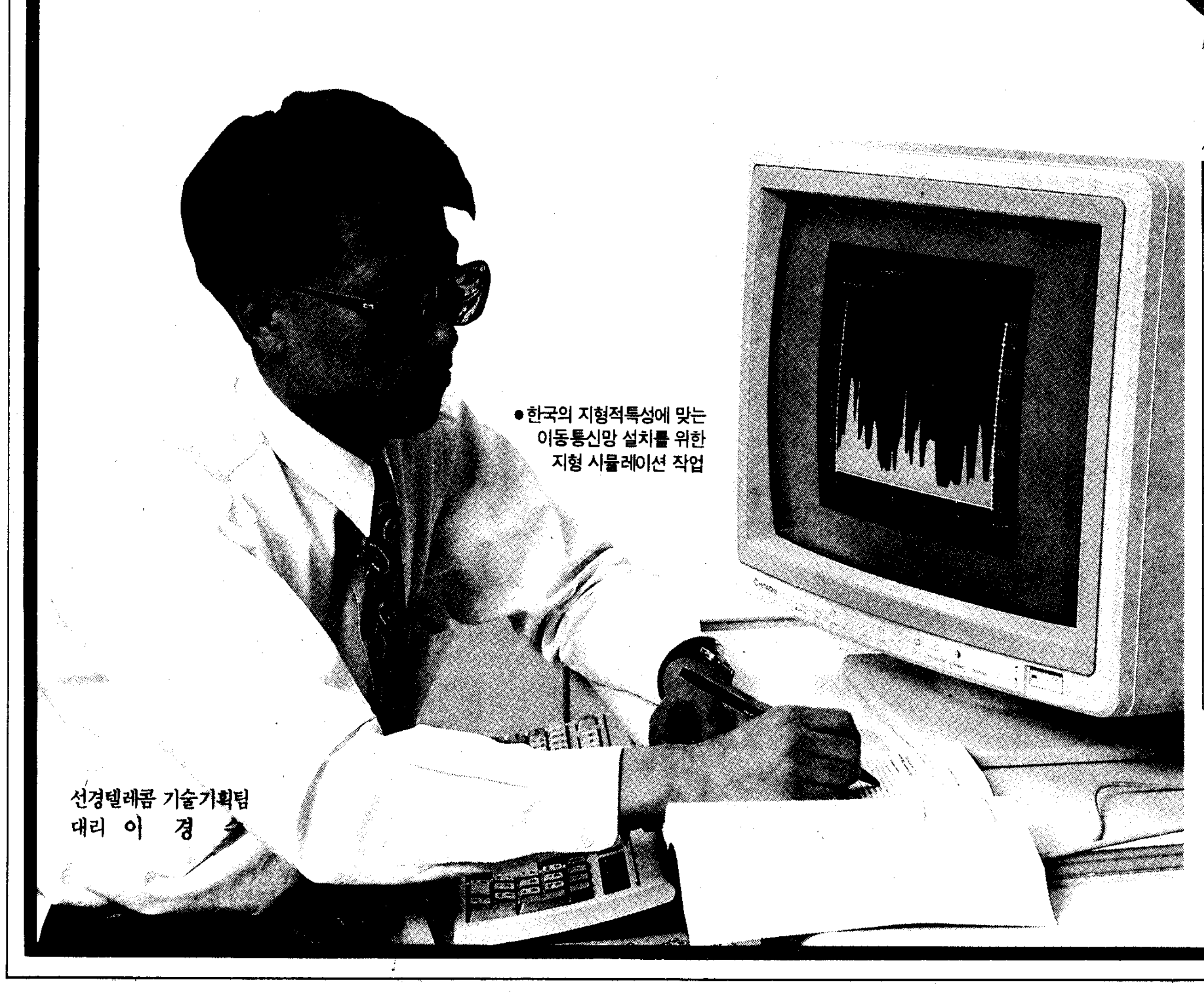
변혁의 기운은 세계사적으로, 또 우리 내부에서도 서서히 그러나 확고한 방향성을 담보하고 형성되고 있음을 믿는다.

이런 때일수록 선각의 지혜와 장차에 대한 혜안이 더욱 요구된다.

아전인수가 아니기를 전제로 이러한 세기말적 상황속에서 대학주보의 지령 1천호 발간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본다. 37개 성상동안 대학주보가 걸어온 그 굴절과 영광, 좌절과 극복의 역사속에서 찾아지는 교훈을 다시금 음미해 볼 일이다. 이 치열한 모순과 변혁의 시대에 대학주보가, 대학주보만이 할 수 있는 해법. 그 철학적, 또는 실제적인 모색을 기대해본다. 지령 1천호의 세월 속에 응축되어 있는 그 모든 역량과 교훈을 이끌어내어 이 모순과 변혁의 시대에 민족과 역사앞에 선각의 모습으로, 지혜의 횃불로 다시금 우뚝서기를……. 〈龍〉

「축」창간 37주년 지령 1000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일 –
선경이 하고 있습니다.
선경은 국내 최초로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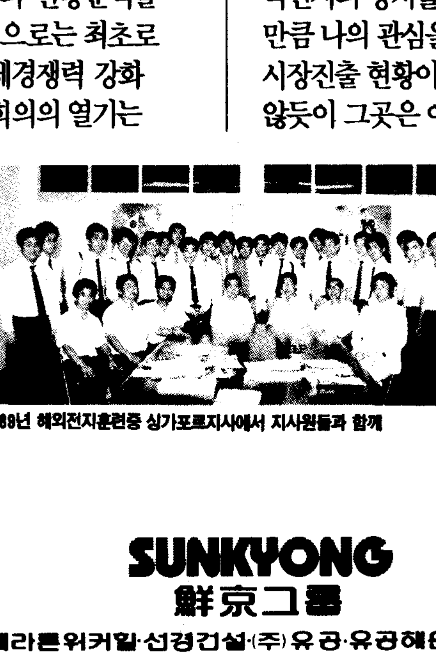
"21세기 통신혁명을 준비하는
정보통신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준비하는 21세기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바늘은 어느새 밤9시를 향하고 있지만 US셀룰라사와 함께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네시주 이동통신사업의 현황분석을 위한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해외 통신시장에 진출, 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술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에 회의의 열기는 더해간다. 2000년대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 정보통신산업.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적 설계 및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담당으로서 나의 목표는 이미 신입사원시절부터 구체화되었다.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3년전, 국제적 안목과 패기 함양을 위해 참여한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식민지의 상처를 씻고 새롭게 변모하는 동남아의 모습만큼 나의 관심을 끈 것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시장진출 현황이었다. SONY, IBM의 상표가 낯설지 않듯이 그곳은 이미 선진국들의 경제적 각축장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
우리의 기술로 동남아에 정보통신 시장을 개척하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그날을 다짐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바라본 밤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89년 해외전지훈련중 싱가포르지사에서 지사원들과 함께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화학·(주)흥국상사